



참케어 손목시계형 혈압측정기 'H2-BP'

# 고혈압 진단 뒤 스마트워치 보고 만든 측정기

2004년 설립된 참케어는 환자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비 제조 의료기기 업체다. 지난해까지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은 다를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내년 목표 매출을 15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2년 만에 외형은 10배 이상으로 키울 계획이다.

H2-BP는 참케어가 이달 출시한 손목시계 모양의 휴대용 혈압측정기다. 4년 동안 2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다. 무게는 44g으로 가벼운 데다 평범한 스마트워치를 닮아 눈에 띄지 않는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펄스 형식의 혈압측정기를 손목시계 크기로 축소한 것은 참케어가 처음이다. 단순 착용이 아니라 의료 데이터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이동화 참케어 대표는 "국내 고혈압 환자 1100만 명 중 수시로 혈압을 확인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150만 명"이라며 "국내 및 해외의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슨서 익힌 기술 활용  
이 대표의 첫 직장은 1세대 의료기기 벤처기업 메디슨이었다. 여기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바이오시스에서 사업부장으로 지내다 2004년 참케어를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이 대표에게 고혈압이 찾아왔다. 초기 단계에서 혈압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혈압을 자주 측정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도 있었다. 먼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든 가정용 제품을 써봤다. 하지만 출근 이후엔 사용할 수 없어 '내 혈압



이동화 참케어 대표가 휴대용 혈압측정기 'H2-BP'를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시곗줄 당겨서 혈압 측정 3가지 기술 특허 등록 완전 충전하면 3일간 사용

세계 최대 獨전시회 출품 유럽·미국 등에 수출 계획

은 관찰을까' 하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다. 이 대표는 스마트워치를 보고 손목시계 형태의 혈압측정기 아이디어를 얻었다. 손목시계 형태라면 야외활동 중에도 언제나 혈압을 잴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목표 참케어는 수출 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범은 삼성과 애플이 내놓은 스마트워치처럼 광센서를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오차 때문이었다. 참케어는 공기 펌프로 손목을 조이는 대신 시곗줄(스트랩)을 당기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대표는 "해외 경쟁사도 공기펌프를 손목시계 크기로 줄일 수 없어 이런 제품을 못 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케어는 시곗줄을 조이며 혈압을 재는 기술로만 특허 3개를 등록했다. 자고 있을 때도 혈압을 잴 수 있다. 이 대표는 "1시간 30분 동안 완전 충전하면 3일간 사용할 수 있다"며 "최대 100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케어	
설립	2004년 5월
위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제품	H2-BP
특징	손목시계 모양의 휴대용 혈압측정기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에 H2-BP를 내놓자 행사 관계자 150여 명이 직접 혈압을 측정해봤다. 이 대표는 "유럽에서 독점 판매 권한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현지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대로 유럽과 미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2-BP의 기능은 현재 두 개다. 시간을 보거나 혈압을 측정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참케어는 조만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도 연동해 '진짜 스마트워치'처럼 쓸 수 있는 제품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광센서를 이용한 의료기기 인증에도 도전한다. 혈압을 측정할 때 손목의 높이(고도)를 바꿔 2회 측정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 대표는 "내년 말이면 광센서를 이용한 소형 제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H2-BP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2021년께 코스닥 상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창업 준비하다 크게 다쳤을때... 구원자는 노트북과 주변 창업자들



오기혁 OhY LAB. 대표



가장 먼저 청정사 중간 발표와 출석 체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청정사는 중소기업연수원 내에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대신 하루 네 시간씩 반드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쳐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몸이 쪼뼛등해 가볍게 몸을 푸는데 망치로 나무를 때릴 때 나는 것과 비슷한 '탕!' 소리와 함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단다. 수술도 하고, 두 달간 깁스를 하고, 보조기구에 의존해 재활해야 6개월~1년 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진단을 받았다. 깁스를 한 후에는 되도록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말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산티미처럼 쌓여있는 일거리를었다.

OhY LAB.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정사)에 입소해 첫 번째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아 놀이용품 개발은 직접하지 않고 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줄 디자이너와 생산할 공장, 정보기술(IT) 프로그램을 개발할 외주업체는 발품을 팔아 찾아야 한다. 6~8주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모든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렸단 뜻이다. 심지어 다친 날 바로 다음주에는 청정사 중간 평가가 있었다. 추가 지원금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출석해야 한다. 정산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병가 신청을 해야 했다. 중간 평가는 청정사 측 양해를 얻어 함께 일하는 대표가 맡아 주기로 했다.

다음 문제는 각종 회의와 미팅이었다. 디자인을 맡기고 싶었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한 번 보자고 연락한 터였다. OhY LAB.의 첫 제품 출시가 내년 상반기인 만큼 미팅을 미루면 제품 출시가 늦어질 게 뻔해 회의는 해야 했다. 다행히 작가는 병원으로 와주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많은 만남과 회의를 병실에서 했다.

청정사 출근과 회의가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업무는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다. OhY LAB.이 콘테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덕분이다. 노트북과 인터넷이 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다쳤다면 주변 사람들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 병실과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무공간을 같이 쓰는 다른 창업 대표들도 도움 덕이다.

## 벤처 직원 76만2000명... 5대 그룹 합계보다 많아

지난해 매출 225조2000억... 재계 2위 규모

지난해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7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삼성 등 5대 그룹 직원을 합친 숫자(75만6000명)보다 많았다. 벤처인증 받은 3만5187개 기업이 올린 2017년 매출은 225조2000억원에 달했다. 삼성(258조원)에 이어 재계 2위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 3만5187개 중 2059곳을 표본으로 해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가량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성과, 기술혁신 실태 등을 조사

했다. 벤처기업의 평균 직원 수는 21.7명으로, 2016년보다 4.3%(0.9명)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3만1000여 명 증가해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이 국내 고용 인위 유지에 기여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벤처기업의 전체 매출(225조2000억원) 합계는 현대자동차보다 많았다. 평균 매출은 64억2000만원으로, 전년(58억8000만원)보다 8.9% 증가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벤처기업 한 곳당 평균 이익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2억6000만원)에 비해 2.6% 늘었다. 하지만 평균 순이익은 1억6000만원으로, 전년(1억7000만원)보다 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130.6%로, 전년의 136.8%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기업(95.5%)보다는 높고 일반 중소기업(163.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매출 대비 R&D 비율은 3.5%로, 전년(2.9%)보다 높아졌다. 창업주의 64.2%는 공학 전공자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3억2000만원짜리 침구세트의 비밀

뉴스카페

크라운구스, 세계 최고가 출시 아이터 다운이 뒤편

국내 침구류 기업 크라운구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침구 세트를 27일 내놔다. 가격은 3억2000만원.

크라운구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이름을 따 초고가인 '추신수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전까지 가장 비싼 침구는 일본 침구 제조사 니시카와리빙이 만든

구스다운 침구(3억1500만원)였다. 12년 만에 가장 비싼 침구 기록이 깨진 셈.

크라운구스의 추신수 에디션은 "가장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침구류를 만들어 달라"는 추 선수 요청으로 나왔다. 겉감은 모두 실크(비단)로, 속은 1년에 1000kg만 생산된다는 아이슬란드산 아이터 다운으로 채웠다. 니시카와리빙 침구에도 아이터 다운이 들어갔다.

이 다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이 회사 측은 설명이다. 아이터 다운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해안선에 사는 해양성 물고기 아이터 덕의 솜

털이다. 북극권의 혹독한 추위에서 살기 때문에 아이터 덕 솜털의 보온성은 업계에서 최고로 통한다. 생산 방법도 독특하다. 아이터 덕이 새끼를 키우고 동지를 떠난 뒤에 남아 있는 털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동지 한 군데서 나오는 아이터 다운의 양은 20g 정도라고 한다.

이 대표는 "침구류 1세트에 아이터 다운 1.1kg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크라운구스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추 선수에게 추신수 에디션을 증정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에스원, 하니웰과 스마트빌딩 솔루션 업무협약

에스원이 스마트빌딩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에스원은 빌딩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 하니웰과 '스마트빌딩 솔루션 사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각종 센서를 활용해 건물 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상태를 진단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두 회사는 스마트빌딩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빌딩 자동 제어 솔루션(BMS), 호텔 객실관리 솔루션 공급, 영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BMS는 건물의 공조, 냉난방, 환기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하니웰은 BMS, 공장 제어 시스템, 보안·방재 등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가장 합리적인 선택, **한경 경영지원단**

# 사람도, 기업도 조기/진단

기업의 암(癌) 가지급금, 차명주식  
조기에 발견하면 쉽습니다

**가지급금**    **명의신탁(차명주식)**  
시간이 갈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회수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문제해결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은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며 소유권 분쟁과 세금폭탄을 유발합니다.



문의 010-3804-2310  
www.hankyungbiz.com

기업 지원 프로그램 | 기업승계 · 자기주식취득 · 특허경영 · 인사노무 · ERP도입 · M&A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COT · TOT

국내최초 전문사 경영지원 브랜드  
**한경 경영지원단**